

민실위 보고서

2012년 2월 2일(목)

파업 중에 더욱 노골화 된 <뉴스데스크>의 불량품 생산!

파업의 큰 원인이 됐던 <뉴스데스크>의 편파보도가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. 이는 현재 진행 중인 노동조합의 파업과 앞서 진행됐던 기자들의 제작거부가 얼마나 정당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.

<뉴스데스크>는 지난달 30일 경찰 발표를 인용해, 지난해 서울 시장 선거 당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가 연회비 1억원짜리 피부숍을 다닌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도했다. “이 피부클리닉은 1억원짜리는 물론, 연간 회원제 자체가 없다” “그리고 나 전 후보가 실제 지불한 돈은 모두 550만원이다”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.

<뉴스데스크>뿐만이 아니다. 이 날 낮 12시 TV뉴스와 낮 12시, 오후 2시, 7시 라디오 뉴스에서도 이 뉴스가 단신으로 방송됐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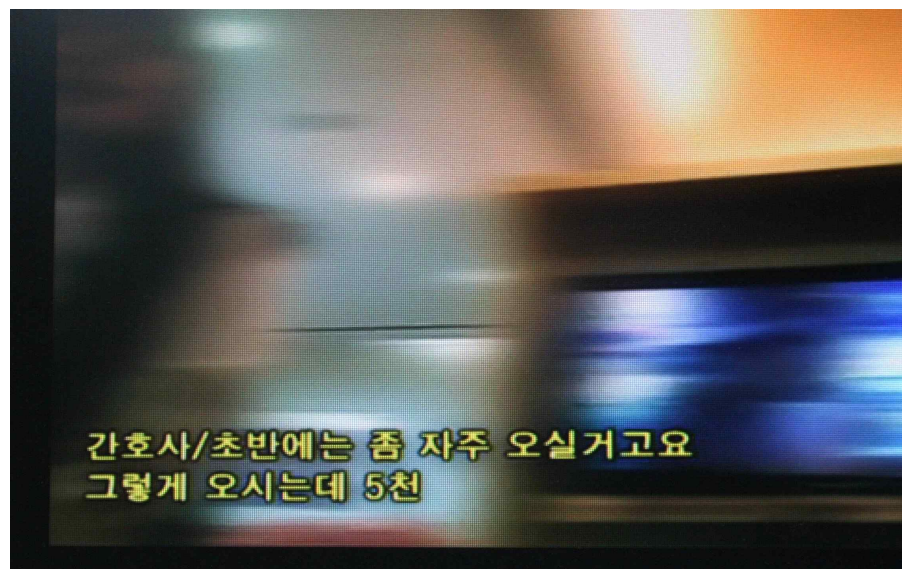


하지만 <뉴스데스크>리포트에서는 경찰이 문제가 불거진 뒤 무려 40일이나 지난 다음에야 압수수색을 벌인 점, 그래서 피부숍 관계자들이 자료를 은폐하고, 말을 맞출 시간이 충분했다는 점 등은 리포트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.

더구나 이를 뒤인 이달 1일에는 <시사인>인이 경찰의 조사결과를 뒤집는 취재자료를 공개했다.

<시사인>이 공개한 동영상에서 당시 피부숍 원장은 기자가 클리닉 비용을 ‘한 장’이라 듣고 왔다고 말하자 “한 장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냐?”고 반문했다. 기자가 ‘1억 원’이라고 대답하자 “애는 젊으니까 그럴 필요 없다. 반 정도면 된다”라고 말했다. 또 원장과 상담이 끝난 뒤 간호사는 실제로 취재기자에게 연간 관리 비용으로 5천만원을 준비하라고 말했다.

<시사인>이 공개한 동영상을 보면, 원장이 피부 관리 비용으로 연간 1억원이라고 언급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.



하지만 이런 사실을 <뉴스데스크>는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. 심지어 해당 부서인 사회2부는 스트레이트 기사도 쓰지 않았다. 그래서 TV와 라디오, 인터넷 그 어느 곳에서도 <시사인>이 이런 반박자료를 냈다는 소식은 보도되지 않았다.

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변경 사항이 생기면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리고,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한다. 제품을 생산한 뒤 하자가 생기면 제조사는 애프터서비스를 통해 고쳐줘야 한다. 언론도 그래야 공정한 언론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. 그런데도 우리 뉴스는 이에 대한 스트레이트 기사도 한 줄 쓰지 않았다. 때문에 TV와 라디오, 인터넷 등 MBC가 가진 그 어떤 매체에도 이 사실이 보도되지 않았다.

지난 한 해 동안 ‘여권에 유리한 내용이면 크게 다루고, 불리한 내용이면 조그맣게 보도하거나 아예 보도하지 않는다’는 MBC 보도국의 ‘숨은 보도지침’이 또 한 번 확인된 셈이다.

기자들은 더 이상 이런 ‘불량품 뉴스’를 만들고 싶지 않아 5층 보도국이 아닌 차가운 1층 현관에 모였다. 조합원들은 더 이상 이런 ‘불량품 뉴스’를 생산하는 ‘불량 방송국’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1층에 모인 것이다.